TAKÁCS QUARTET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TAKÁCS QUARTET

리 처 드 용 재 오 닐, 전 설 들 과 마 주 하 다

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

2022.10.6 THU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

Takács Quartet

2022년 10월 6일 (목)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30PM Thursday, October 6, 2022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CREDIA

타카치 콰르텟	Takács Quartet
제1바이올린, 에드워드 듀슨베리	Edward Dusinberre, Violin I
제2바이올린, 하루미 로데스	Harumi Rhodes, Violin II
비올라,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Viola
첼로, 안드라스 페어	András Fejér, Cello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하이든 1732-1809 Austria
J. Haydn

현악사중주 바장조, 작품번호 77 중 2번/호보켄번호 III:82
String Quartet in F Major, Op. 77 No. 2/Hob. III:82

I. Allegro moderato 적절한 수준으로 빠르게
II. Menuetto. Presto ma non troppo 메뉴에토. 급하게, 지나치지 않게
III. Andante 느리게
IV. Finale. Vivace assai 피날레. 매우 생기있게 빠르게

바르톡 1881-1945 Hungary
B. Bartók

현악사중주 6번, 쇨레시번호 114
String Quartet No. 6, Sz. 114

I. Mesto - Vivace 슬프게 - 생기있게 빠르게
II. Mesto - Marcia 슬프게 - 행진곡
III. Mesto - Burletta. Moderato 슬프게 - 부를레타: 보통 빠르기로
IV. Mesto 슬프게

CREDIA

I N T E R M I S S I O N

슈베르트 1797-1828 Austria
F. Schubert

현악사중주 14번 라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

I. Allegro 빠르게
II. Andante con mot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나 활기 있게
III. Scherzo. Allegro molto - Trio 스케르초. 대단히 빠르게 - 트리오
IV. Presto - Prestissimo 매우 빠르게 - 가장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EQB
THIS IS FOR
NEW DIMENSIONS.
S EQ 2501E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EQB 300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4.1km/kwh (도심 4.4km/kwh, 고속도로 3.8km/kwh)
1회 충전거리 313km, 공차중량 2,110kg 배터리용량 66.5kwh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제프 하이든
현악사중주 바장조, 작품번호 77 중 2번/호보켄번호 III:82

Joseph Haydn
String Quartet in F Major, Op. 77 No. 2/Hob. III:82

교향곡 작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요제프 하이든(1732-1809)은 현악사중주에도 큰 애정을 가지고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68곡의 현악사중주곡을 남겼다. 이 중 1799년에 로프코비츠(Lobkowitz) 공의 위촉으로 작곡된 'Op. 77' 현악사중주 세트는 사장조와 바장조 두 곡을 포함하고 있다. 하이든이 받은 위촉은 본래 여섯 곡이었지만, 베토벤도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곡을 위촉받아 새로운 형식으로 작품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곡을 마친 후 작곡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다음 현악사중주곡인 'Op. 103'(1803)이 미완성이므로, 이 두 곡이 하이든이 완성한 마지막 현악사중주곡이 되었다. 출판은 베토벤의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 Op. 18'보다 1년 늦은 1802년에 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은 'Op. 77'의 두 곡 중 2번을 연주한다.

1악장 '적절한 수준으로 빠르게'는 소나타 형식으로, 귀족적인 단아함과 유쾌한 율동성, 그리고 고전적인 서정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구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이든의 음악적 위트와 도발은 여전히 효과적이다. 2악장 '메뉴에토. 급하게, 지나치지 않게'는 경쾌하게 시작하며, 코랄 풍의 중간 부분(트리오)은 이와는 정반대로 경건하기까지 하다. 3악장 '느리게'는 꾸밈음이 많은 제1바이올린과 박자를 또박또박 지키는 첼로의 이중주로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변주하는데, 예상치 못한 화음 연주에서 잠시 한숨을 돌린다. 4악장 '피날레. 매우 생기있게 빠르게'는 네 악기가 어우러지며 복잡한 음향을 만든다.

CREDIA

벨라 바르톡
현악사중주 6번, 쇨레시번호 114

Bela Bartók
String Quartet No. 6, Sz. 114

낭만시대를 지나면서 존재감을 잃었던 현악사중주를 서양음악사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하게 한 인물은 벨라 바르톡(1881-1945)이었다. 그는 생애에 고르게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곡을 작곡하여 자신의 음악적 발전 과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역사적인 의미도 간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곡인 <현악사중주 6번>(1939)은 당시의 음악 예술을 대하는 바르톡의 완숙한 시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바르톡이 <현악사중주 6번>을 작곡했던 때는 그에게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다. 총리를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이 파시스트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을 떠나고자 했지만, 어머니가 병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1939년 8월에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뉴헝가리 사중주단의 위촉으로 현악사중주곡의 작곡을 시작한 후, 다시 부다페스트에 돌아와 11월에 완성했다. 그러나 불안한 정세에 뉴헝가리 사중주단

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12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바르톡은 이듬해 10월에 미국 이민을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초연은 1941년 1월 뉴욕에서 콜리시(Kolisch) 사중주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에게 헌정되었다.

1악장 '슬프게-생기있게 빠르게'는 비올라 홀로 애조 띤 선율을 연주하는 서주로 시작한다. 특이하게도 모든 악장이 '슬픈'(mesto) 서주로 시작하는데, 모두 이 선율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또한 각 악장의 주요 주제의 기반이 된다. 서주를 마치면, 코랄 풍의 또 다른 서주가 잠시 등장하고, 곧 제1바이올린이 상행하는 제스처 수준의 짧은 제1주제를 제시한다. 이 주제는 다양하게 변형되고 연결되어 악곡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점차 느려지더니, 제1바이올린이 조용히 오르내리는 민속적인 제2주제를 연주한다. 이 두 주제로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한다.

2악장 '슬프게-행진곡'은 약음기를 끼워 어렴풋이 들리는 제1바이올린 선율과, 역시 약음기를 끼운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트레몰로가 음습한 분위기를 만들며, 첼로가 '슬픈' 선율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행진곡'은 헝가리의 빠른 집시 음악인 '베르분코시'(verbunkos)로, 1년 전에 작곡된 삼중주곡 <대비>(1938)의 1악장 '베르분코시'와 닮았다. 행진곡이라고는 하지만, 부점과 당김음이 많아 이 음악에 맞춰 행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간 부분은 첼로가 이와 대조되는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하지만 트레몰로와 기타 효과 등 다양한 날카로운 음향이 이어지며 편안히 쉬도록 놔두지 않는다. '행진곡' 스타일이 반복되며 마친다.

3악장 '슬프게-부를레타: 보통 빠르기로'는 제1바이올린의 '슬픈' 선율 연주로 시작하며, 첼로는 전통적인 라멘토 패턴으로서 반음계로 하강하고,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상념에 빠진 듯 웅얼거리는 패턴을 반복한다. 이어지는 '부를레타'는 활의 줄감개에 가까운 부분으로 야성적이고 거칠게 연주한다. 절뚝거리는 리듬은 익살극을 연상시키며, 두 바이올린이 짧은 글리산도를 함께 연주할 때 미숙하게 잘못 연주하는 것처럼 제2바이올린이 1/4음 낮게 연주하여 우스꽝스럽게 들리게 한다. 중간의 '조금 느리게' 부분은 이와 대비되는 서정성을 보인다.

4악장 '슬프게'는 앞의 세 악장에서 제시된 '슬픈' 서주 부분이 악장 전체로 확장되어 있다. 앞에서는 슬픔을 뒤로 하고 과거의 추억을 돌아보았다면, 이 악장에는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리고 고국을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그의 슬픈 마음이 새겨져 있다.

프란츠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라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Franz Schubert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1797-1828)에게 가곡은 영감의 원천이자 원석이었다. 그래서 가곡은 그 자체로 완성작이면서도 다른 곡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1824)도 가곡 <죽음과 소

녀, D.531>(1817)를 주요 주제로 사용했다. 가곡 <죽음과 소녀>에는 '소녀'와 '죽음' 두 배역이 등장한다. 소녀는 다가오는 해골에게 쫓기는 듯한 빠른 리듬으로 나를 만지지 말고 지나가라고 소리치듯 노래하고, 죽음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품에 편히 잠들라고 유혹하며 은은하게 가사를 읊는다.

가곡이 인용된 부분은 2악장으로, 가곡의 서주와 '죽음' 부분의 앞부분이 주제로 제시되고 다섯 개의 변주가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변주에서 죽음의 뒷부분이 등장하여 평온하게 마친다. 죽음을 거부하는 소녀 부분은 격렬하게 상승하는 음형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슈베르트가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슈베르트가 1824년에 그동안 작곡된 수많은 가곡을 물리치고 7년 전에 작곡한 이 짧은 가곡 선율에 현악사중주곡을 작곡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1822년부터 시작된 매독 증상이 심해져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악보들을 통째로 출판업자인 디아벨리에게 맡겼고, 친구에게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적어 보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랑과 우정 대신 고통만이 주어진 사람,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봐." 음습하면서도 격렬한 <'죽음과 소녀' 사중주>는 그의 진실한 심정이자 삶에 대한 투쟁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1악장은 죽음에 대한 저항, 2악장은 죽음의 유혹, 3악장은 죽음의 승리, 그리고 4악장은 죽음의 광란의 춤(타란텔라)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2악장뿐만 아니라 모든 악장에 죽음과 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숙명적인 체념이 뒤섞여있다.

초연은 2년 후인 1826년에 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슈베르트가 비올라를 연주했을 것이다. 그해에 이루어진 공식 연주 때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그나츠 슈판치히가 "별것 아니군. 이건 내버려 두고 가곡에나 신경 쓰게."라고 말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악기들에 주선율을 배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복잡한 텍스처를 구성하는, 슈베르트의 완숙하고 노련한 솜씨가 이루어낸 걸작에 대한 평가로서는 마땅하지 않은데, 이는 이 작품이 당시 빈 음악계의 유행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후에 슈만은 "(베토벤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슈베르트 이전에 아무도 이루지 못한 완벽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으며, 지금은 슈베르트의 대표 실내악곡으로서 수없이 연주되고 있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CREDIA
MUSIC&ARTISTS

CREDIA
CLASSIC
CLUB 2023

그곳에 클래식이 있다

BON VOYAGE

한달에 한번 **수요일**
롯데 콘서트홀
전석 38,000원

크레디아 클래식클럽 2023

1.11 | 2.15 | 3.8 | 4.5 | 5.3 | 6.7 | 9.6 | 10.4 | 11.8 | 12.6

©gettyimages

타카치 콰르텟

Takács Quartet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워드 듀슨베리와 하루미 로데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그리고 첼리스트 안드라스 페어가 멤버로 있는 타카치 콰르텟은 2022-23년 시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투어를 시작하며 하이페리온 레이블로 2장의 신보(스티븐 허프 초연곡 'Les Six Recontres', 라벨과 뒤티외의 곡을 수록한 음반과 하이든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44, 77, 103번을 수록한 음반)가 발매될 예정이다. 타카치 콰르텟은 런던 위그모어 홀의 상주 아티스트로서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등 대표적인 현악사중주곡들로 이루어진 리사이틀과 에드워드 듀슨베리의 새로운 저서 'Distant Melodies: Music in Search of Home'에서 다룬 곡들로 구성한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즌에 이들은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와 풍부한 레퍼토리의 프로그램으로 또 한 번 북미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럽의 클래식 음악 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 슈베칭엔 페스티벌, 바쓰의 모차르트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마드리드의 국립 음악당, 빌바오의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암스테르담의 콘세트르헤바우에서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북미 대륙에서는 뉴욕, 토론토, 벤쿠버, 필라델피아, 앤 아버,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피츠버그, 시애틀, 투싼, 포틀랜드, 그리고 산호세 대학의 베토벤 센터에서의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타카치 콰르텟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2021-22 시즌, 클라시스 아사드와 브라이스 데스너가 뮤직 어코드로부터 위탁받아 작곡한 신곡을 반도네온 연주의 권위자 줄리앙 라브로와 함께 초연했다. 2014년엔 프린스턴에서 필립 로스의 소설 '에브리맨(Everyman)'에서 영감을 받은 연주회 프로그램에 배우 메릴 스트립의 낭독을 곁들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2015년 토론토의 로열 콘서바토리 뮤직에서 다시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카네기홀에서 배우 故필립 시모어 호프만과 첫선을 보였었던 작품이었다. 그들은 또한 시인 로버트 핀스키와 헝가리의 집시음악 연주단인 무지카쉬와 함께 14개의 도시를 투어했다.

타카치 콰르텟은 최근에 하이페리온 레코드에서 발매한 패니와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앨범으로 프레스토 뮤직에서 올해의 음반상, 그리고 피아니스트 게릭 올슨과 함께 녹음한 에이미 비치와 엘가의 피

© AMANDA TIPTON

아노 퀸텟 앨범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음반 외에도 타카치 콰르텟은 하이페리온 레코드에서 하이든, 슈베르트, 야나첵, 스메타나, 드뷔시, 브리튼의 현악사중주, 피아니스트 마크 안드레 하멜린과 함께한 프랑크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오중주, 비올리스트 로렌스 파워와 함께한 브람스와 드보르작의 비올라 오중주를 담은 음반들을 발매했다. 또한 데카/런던 레이블로 발매한 음반들로 3번의 그라모폰상과 그래미상 수상자로 지명되었으며, 일본의 음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 부문 우승, BBC 음악 매거진의 첫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 그리고 영국의 클래식 음악 시상식 클래시컬 브릿에서 올해의 앙상블 앨범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타카치 콰르텟은 현악사중주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위그모어 홀에서 수여하는 메달을 받았다. 2012년 그라모폰은 타카치 콰르텟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첫 현악사중주단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타카치 콰르텟은 로얄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한 시상식에서 실내악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현재 타카치 콰르텟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에서 크리스토퍼센 펀드 교수진으로 재직중이며 드레이크 재단에 의해 악기를 후원받고 있다. 타카치 콰르텟의 멤버들은 매 해 여름, 현악사중주 세미나를 개최하는 산타바바라의 뮤직 아카데미 오브 더 웨스트의 교수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런던 길드홀 음악 연극학교의 객원 교수이다.

타카치 콰르텟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음악원 출신인 가보르 타카치 나지, 카로이 슈란츠, 가보르 오르마이 그리고 안드라스 페어가 1975년 창단하였다. 1977년 프랑스의 에비앙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 타카치 콰르텟은 1978년 포츠머스와 보르도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부다페스트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는 1위, 1981년 브라티슬라바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둔 이후 미국 활동을 시작하였다.

© AMANDA TIPTON

에드워드 듀슨베리

Edward Dusinberre

제 1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워드 듀슨베리는 그래미상, 그라모폰 매거진, 일본 아카데미, 체임버 뮤직 아메리카 그리고 로얄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상의 수상자이다. 그는 현악사중주단의 연주자뿐만 아니라 솔리스트로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과 10번을 녹음하여 데카 레이블로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작가이기도 한 그는 두 번째 저서 'Distant Melodies: Music in Search of Home'이 시카고 대학교 출판사에서 올해 가을, 출판된다.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새로운 세대를 위한 베토벤: 타카치 콰르텟의 베토벤 현악 4중주 연주 여정'은 독자들을 현악사중주단의 삶 속으로 빠져들게 했고, 타카치 콰르텟이 음악을 연습하고 연주하는 동안 느꼈던 경험들과 베토벤이 곡을 썼을 당시의 환경을 조명해 그 시대의 역사와 회고를 잘 녹여냈다는 평을 들었다. 이 책은 2006년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RPS)의 크레이티브 커뮤니케이션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그는 미국 볼더 지역에서 거주하며, 콜로라도 대학교의 상주 음악가이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7년 산타바바라의 '뮤직 아카데미 오브 더 웨스트'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런던 길드홀 음악원의 객원 교수이다.

CREDIA

© AMANDA TIPTON

하루미 로데스

Harumi Rhodes

제 2 바이올리니스트

뉴욕 타임스로부터 "깊은 표현력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찬사를 받은 하루미 로데스는 그녀의 뛰어나고 진실한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음악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무대 위에서 하루미 로데스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영혼을 느낀 관객들은 엄청난 영감을 받았고, 이는 그녀를 그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했다. 최근 그녀는 번스타인의 세레나데,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버몬트 모차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비발디 사계를 협연했다. 그녀는 또한 독일 나움부르크 콩쿠르 앙상블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카비티노 트리오의 창단 멤버로, 뮤지션즈 프롬 말보로와 링컨센터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열었다.

현대 음악의 열렬한 후원자이자 연주자로서 보스턴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이스트 코스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뮤직 프롬 코플랜드 하우스에 소속되어 작곡가들에게 곡을 위탁하고, 초연하는 열정을 보여준다. 그녀는 현재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현악/실내악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줄리아드 음악원과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AMANDA TIPTON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2021년 최고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서 클래식 독주악기 부문 상을 수상하며,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과 그래미 상을 모두 받은 매우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에마누엘 액스, 레온 피셔, 개릭 올슨, 메너헴 프레슬러, 스티븐 이설리스, 에머슨 현악사중주단, 줄리아드 현악사중주단, 앙상블 빈-베를린, 에네스 콰르텟 등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연주해 왔고 2020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타카치 콰르텟의 새로운 비올리스트로 합류하였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유니버설/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서 2017년까지 9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 총 200,000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한 MBC <안녕?! 오케스트라>와 같은 TV 다큐멘터리로 많이 알려졌고 주요 미디어가 그의 이야기와 음악 활동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음악 감독으로 있었던 앙상블 디토와 디토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클래식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CREDIA

© AMANDA TIPTON

안드라스 페어

András Fejér

첼리스트

첼리스트 안드라스 페어는 1955년생으로, 1975년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에 입학, 에데 반다, 안드라스 마하이, 페렌츠 라도스, 그리고 기오르 쿠르탁을 사사했다. 그는 같은 해 입학한 동기 3명과 함께 타카치 콰르텟을 결성했다. 그는 콰르텟을 결성한 후, 현악사중주단에 집중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았고, 독주자로서 여러 무대에 서기도 하였다. 안드라스는 문학 교사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3명의 아이와 사계절 내내 햇살이 아름답게 내리쬐는 로키산맥 사이의 콜로라도 볼더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투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독서, 사진, 테니스, 그리고 하이킹을 즐긴다.

Interview with Edward Dusinberre

Q. 6년 만의 내한 공연인데요. 오랜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한국 관객분들 덕분에 지난 내한 당시 무척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연주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Q.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으로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공연에서 현악사중주를 위해 작곡된 세 곡의 위대한 작품들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하이든의 작품 번호 77번 중 2번은 유머와 생동감,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찬 작품이죠. 바르톡의 현악사중주 6번은 다양한 감정을 아우르는 전위와 망명에 대한 강력한 명상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는 저희가 지금껏 연주한 작품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입니다.

Q.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특히 유의해서 볼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저는 관객분들이 공연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의 다양한 분위기와 저희가 공연을 통해 선보이고자 하는 자유로운 감각들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악사중주는 사회 공동체의 축소판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타카치 콰르텟 멤버 개개인의 활약은 물론 저희가 하나 된 팀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Q. 리처드 용재 오닐의 장점은 무엇이고, 타카치 콰르텟의 성장에 용재 오닐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재 오닐은 경이로운 연주자예요. 물론 정말 대단한 비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현악사중주단이 연습을 하는 과정은 특정한 악구들을 연주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며, 항상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리처드와 함께 하며 저희는 팀으로서 매우 자신감을 얻었고, 우리의 생각들을 시도해 보고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갖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창단 후 반세기 동안 여러 멤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흐르고 있는 타카치 콰르텟만의 색깔 혹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희는 연주를 통해 작품 속의 특징과 분위기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음악을 얼마나 즐기는지를 관객분들 또한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채로운 소리로 음악과 함께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관객분들이 더 듣고 싶어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Interview with Richard Yongjae O'Neill

Q. 타카치 콰르텟에 합류하게 된 소감과, 처음으로 함께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한국은 제 어머니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제게도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 많은 꿈들이 실현된 곳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현악사중주단의 멤버가 되어, 제가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객분들과 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Q. "인생에서 꿈꾼 이상향이 타카치 콰르텟 멤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꿈 꿔온 이상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제가 꿈꿔온 이상향이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악사중주단의 멤버가 되는 것은 꿈이 실현되는 것이죠. 지금껏 타카치 콰르텟이 성취한 정도의 업적을 달성한 스트링 콰르텟은 정말로 많지 않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음악성을 대표하고, 연주하는 콰르텟은 더 적고요. 타카치 콰르텟이 저를 선택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Q. 타카치 콰르텟과 다른 앙상블 간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타카치 콰르텟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악사중주단 중 하나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과 평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어딘가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타카치 콰르텟이 제가 지금껏 해온 모든 노력과 헌신의 총 집합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Q. 47년 동안 타카치 콰르텟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음악에 전념했습니다. 네 명의 멤버 모두 팀에 100% 헌신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과 최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Q. 타카치 콰르텟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타카치 콰르텟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작품들을 의뢰해 둔 상태고, 계속해서 모험적인 일들과 다른 연주자와의 협연도 기획할 거예요. 곧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일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CREDIA
MUSIC&ARTISTS
엘가 첼로 협주곡 Op.85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Op.18
지휘 이병욱 | 연주 디토 오케스트라 | 스페셜 게스트 문태국
© EMI
02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다
22
© SANGMOOK LEE
임동혁, 문태국 MEET 디토오케스트라
임동혁 데뷔 20주년 스페셜 콘서트
2022.10.23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재단법인 성정문화재단
WARNER CLASSICS
티켓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CREDIA
MUSIC&ARTISTS

음 악 으 로 소 통 하 다

CONNECTED

커 넥 티 드

대니 구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원재연

코른골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헛소동 모음곡' | **라벨** 소나타 2번 | **바흐** 샤콘느 | **슈만** 소나타 1번

2022.11.19 SAT 5 PM | 롯데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LOTTE CONCERT HALL 1544-7744

CREDIA
MUSIC&ARTISTS

사라장 & 비르투오지

SARAH CHANG VIRTUOSI

경이롭고 완벽하다 — 뉴욕타임즈

장유진 — 이한나 — 심준호 — 성민제 등 17인의 비르투오지

비탈리 샤콘느 g단조 |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BWV1043 |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전곡

2022.12.27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7만원 | S석 13만원 | A석 10만원 | B석 6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CREDIA
MUSIC&ARTISTS
탱고 피버
2022 리처드 용재 오닐 송년 콘서트 : 선물
Tango fever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올리앙 라브로, 반도네온
양인모, 바이올린
문태국, 첼로
멈추지 않는 춤
그리고 음악
2022.12.29 THU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 에서 공연을 예매한 유료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